

◆ 한자 시험 대비 비출 문제 (3급)

1.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1) 嶺波 (2) 溪谷 (3) 乾杯 (4) 遲刻
- (5) 近影 (6) 祈禱 (7) 稱讚 (8) 慶州
- (9) 禽獸 (10) 奔放 (11) 浮漂 (12) 胡亂
- (13) 枯葉 (14) 低速 (15) 慧眼 (16) 醇婦
- (17) 派遺 (18) 兜災 (19) 熬熬 (20) 遍宵

2. 다음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1) 悔 (2) 似 (3) 簡 (4) 檜 (5) 掛
- (6) 吸 (7) 翁 (8) 暗 (9) 貌 (10) 泳
- (11) 枕 (12) 賊 (13) 持 (14) 麻 (15) 秀
- (16) 華 (17) 挑 (18) 遊 (19) 叫 (20) 券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 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

- (1) 새 학년이 되어 (답인)선생님이 바뀌었다.
- (2) 최근의 (국제) 정세는 원유 값의 상승으로 불안정하다.
- (3) (음식)점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4) 내 특기는 상대(모사)이다.
- (5) 바다 깊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섬이 생겼다.

4. 다음 훈과 음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 (1) 방해할 방 (2) 계절 계
- (3) 성품 성 (4) 구를 전
- (5) 고기 육

5. 다음 한자어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 (1) () ↔ 白 (2) () ↔ 衰 (3) () ↔ 歡

6. 다음 한자어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 (1) 宜 - () : ① 當 ② 堂 ③ 富 ④ 高
- (2) 畜 - () : ① 釋 ② 城 ③ 積 ④ 事
- (3) 仁 - () : ① 然 ② 恭 ③ 幸 ④ 慈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을 완성하시오.

- (1) 適() 適所 (2) 空前() 後 (3) 瓊瓏() ()

8. 다음에서 장단은 관계없이 동음이의어를 정자로 쓰시오.

- (1) 錄音 - () :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의 그늘
- (2) 磬路 - () : 다급할 때 지르는 소리
- (3) 樣式 - () : 서양 음식

9. 다음 한자어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 (1) 日氣 - () (조건:2음절)
- (2) 候鳥 - () 새 (조건:1음절)
- (3) 利殖 - () 심기 (조건:2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 (1) 總 (2) 龍 (3) 興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스물세번째 마당)

활어버찌때 무슨 일이 생길 걸까?



다음 번에 계속

재미있는 한자성어

구밀복검(口蜜腹劍)

(입 구, 꿀 밀, 배 복, 칼 검)

직역 : 입에는 꿀, 배속에는 칼.

의역 :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다.

유사어 : 인면수심(人面獸心), 교언영색(巧言令色), 면중복배(面從腹背)

당나라 현종은 재위 초기에는 정치를 잘해서 칭송을 받았으나 후에 양귀비에 빠져 정사(政事)를 멀리했다.

당시 이임보(李林甫)라는 간신이 재상(宰相)으로 있었는데 그는 글씨와 그림에 능하고 다른 재주도 많았지만,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해치려는 음험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늘 운우하고 남을 배려하며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이임보는 절친한 동료 이적지(李適之)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산(華山)은 황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이니 만약 가서 캐낼 수만 있다면 국가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텐데 안타깝게도 황제는 이 사실을 모른다네. 그런데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니 자네가 가서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강직한 성격을 가진 이적지는 바로 현종에게 가서 주청(奏請)했다. 얼마 뒤에 현종이 이임보에게 의향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화산(華山)은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신령스런 곳이에요. 그런 땅에서 황금을 캐면 이는 황제에게 크게 해로운 일이니 전 결코 찬성할 수 없사옵나. 실은 이미 알고 있었사옵대 누가 황제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라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사옵나."

현종은 이 일로 인해 충성스런 신하라고 믿었던 이적지를 멀리 내쫓아 버렸다.

또 어느 날 현종이 이임보에게 묻기를, "엄정지(嚴挺之)는 어디 있는가? 다시 증용할까 하는데..."

"아니, 엄정지를 다시 증용한다고?"

자신이 지방으로 추방시킨 강직한 인물 엄정지를 다시 증용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임보는 즉각 엄정지의 아우 엄손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황제께서 당신의 형님을 몹시 그리워하고 계시네. 황제를 한번 배알

하는 것이 좋겠네. 우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에 이미 들어왔다고 상소문을 올리게."

엄손자는 고맙게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이임보는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정지가 자신은 이미 늙고 또 중풍을 치료 중이라고 상소를 올렸습나. 그러니 한직(閑職)이나 하나 주는 것이 좋을 듯하옵나."

현종이 그렇게 하려고 명을 내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엄정지는 화병(火病)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제거된 사람이 재상 장구령(張九齡)을 비롯해 수백 명이 넘었다.

이임보의 집에는 반달처럼 생긴 방이 하나 있었는데 유독 그 방을 좋아해서 자신의 호를 월당(月堂)으로 지었다.

그런데 이임보가 월당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나오면 얼마 뒤에 반드시 사람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겉모습이 늘 우호적이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경계하며 이렇게 수군댔다.

"이임보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배속에는 칼이 들어 있다(世爲李林甫口有蜜, 腹有劍)."

이렇게 정권을 잡아 재상의 자리에 있는 지 19년이 흐른 뒤에 이임보가 죽었다.

죽자마자 그는 작위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관을 부수고 시체를 꺼내 다시 죽이는 부관참시를 당했다.

세월이 흘러 송나라 때 일이다. 한 청년이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녀의 몸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이임보는 신하로서 불충(不忠)하고 남을 음해하고 죽이기를 밥먹듯 하였으니 삼대(三代)는 청년이 되고 칠대(七代)는 소가 되어 죽도록 일해서 지은 짚값을 치른 후 영원히 물속의 벌레가 되어 살게 되리라.'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절기와 생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였던 달력의 유래를 살펴 보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백제(百濟)가 중국에서 들여온 송(宋)나라의 원기력(元嘉曆)을 사용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다. 그 후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세종대(世宗代)에 일종의 태음력인 칠정산 내편(七政算內篇)과 외편(外篇)의 역법을 만들었는데, 칠정(七政)이란 역목(曆目), 태양(太陽), 태음(太陰), 중성(中星), 교식(交食), 오성(五星), 사역성(四餘星)의 7개 천문을 의미한다.

실제의 달력을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 효종(孝宗) 4년(1653년)에 청(淸)나라에서 수입된 서양 천문학에 영향을 받은 시헌력(時憲曆)을 채용한 때부터이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태양력(太陽曆·양력)은 고종(高宗) 32년

(1895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절기는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 윤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와 다소 불일치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의 주기에 기초하여 1개월에 2개씩의 절기(節氣)를 지정하여 계절의 변화에 대응했기 때문에 실제 중세의 농경사회의 농민들에게는 1년의 역법보다는 24절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대략 15일 간격으로 변하는 절기에 따라서 농사의 시종(始終-시작과 끝)을 이루고 시간과 계절에 순응하면서 생활했던 것이다.

24절기란?

전통적인 절기(節氣)를 지정하는 방법은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의 두 가지가 있

다. 먼저 오랜 세월을 사용한 절기 지정 방법은 평기법으로 만든 절기이고, 창나라 때의 시헌력이 사용되면서 채택된 절기 사용법이 정기법이다.

평기법은 1년을 24등분해서 황도(黃道)상의 해당 점에 각 기(氣)를 매기는 방법으로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중기(中氣)와 절기(節氣)를 매겨 15.218425일씩 더하면서 24절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정기법은 황도상의 동지점을 기준으로 태양이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변화될 때마다 절기(節氣)와 중기(中氣)를 매겨 나가는 방법이다.

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한자나 훈음을 쓰시오.

尊	忠	
	공경할 경	정성 성
	情	省
말을 다		돌이킬 반

◆ 다음 글을 읽고 ()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보기>

- ① 禮 ② 情 ③ 度 ④ 敬

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공(敬)심을 가져야 한다.
 나. 온(도)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삶이 여유롭다.
 라.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자 시험 대비 비출 문제(3급)정답◆

- 1. (1) 수역 (2) 계곡 (3) 건배 (4) 지각 (5) 근영 (6) 기원 (7) 칭찬 (8) 경주 (9) 급수 (10) 분방 (11) 부표 (12) 호란 (13) 고엽 (14) 저속 (15) 헤안 (16) 작부 (17) 파견 (18) 조곡 (19) 독서 (20) 위배
- 2. (1) 누우철 회 (2) 갈을 사 (3) 대쪽 간 (4) 미워할 증 (5) 걸 패 (6) 마실 흘 (7) 늙은이 용 (8) 어두운 짐 (9) 모양 모 (10) 헤엄칠 영 (11) 배개 잡 (12) 도둑 적 (13) 가질 지 (14) 삼 마 (15) 빼어날 수 (16) 빛날 화 (17) 몸을 도 (18) 놀 유 (19) 부르짖을 규 (20) 문서 권
- 3. (1) 擔任 (2) 國際 (3) 飲食 (4) 模寫 (5) 暴發 (6) 妨 (7) 季 (8) 性 (9) 轉 (10) 肉
- 4. (1) 黑 (2) 盛 (3) 衰
- 5. (1) ① 當 (2) ③ 積 (3) ④ 慈
- 6. (1) 材 (2) 絕 (3) 全, 護
- 7. (1) 綠陰 (2) 悲鳴 (3) 洋食
- 8. (1) 날씨 (2) 절 (3) 울거
- 9. (1) 總 (2) 龍 (3) 興

